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임]

- 다음 주는 온 가족 한 마음 예배로 드리며,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 수요 기도회: SBC 총회,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부 모임: 온 가족 한 마음 예배

[알림]

- 공동체 성경읽기 365 플랜 제 24 주 차
- 가정예배 순서지 6 월 3 주차(프린트물, 교회 홈페이지)
- 예배 후 건강한 교회 및 성도 건강검진 설문 작성 시간이 있습니다.
- 어린이 및 청소년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교회 비영리 단체 등록 진행되고 있습니다(보고: 전남형 집사).
- 교회 이메일 변경 안내(기존 이메일은 6 월까지 사용): edmkbc@gmail.com
- 담임목사: SBC 총회 참석, NC, 6 월 12 일(월)-16 일(금)

1	전교인 야외예배	6 월 25 일(주), Rundle Park Site #5, 11 시
2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7 월 2 일(주), 9 일(주), 16 일(주), 23 일(주), 교회
3	청소년부 수련회	7 월 23 일(주)-29 일(토), Prairie Bible College
4	전교인 수련회	8 월 25 일(금)-27 일(주), Strathcona wilderness

[중보기도(기도제목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몸의 회복을 위해 : 김현희, 서혜원, 신대식, 이찬성
- 김정현 집사: 허리 치료를 위해
- 장정운 권사: 고관절 수술 일정과 치료를 위해
- 6 월의 기도제목, 대한민국과 캐나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6 월 기도제목

- ◆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소서.
- ◆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 ◆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삶과 가정과 교회에 회복되게 하소서.
- ◆ 교육부 담당 사역자를 은혜와 섭리 중에 청빙하게 하소서.
- ◆ 여름 사역(성경학교, 수련회, 원주민 선교, 코스타)에 은혜를 주옵소서.
- ◆ 김창섭, 양영창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소서.
- ◆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 6 월의 목회계획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임안내

주일예배	오후 2 시	본당 / Zoom
어린이예배	오후 2 시	소예배실
청소년모임	오후 1 시	청소년부실
수요기도회	저녁 7 시	본당 / Zoom
성경아카데미	해당 요일에	교회 / Zoom
목장모임	목장 A	지정 시간 / 장소
	목장 B	지정 시간 / 장소

6 월 목회계획 (교육(배움)의 달)

4 일	Fellowship with Moravian Church
11 일	건강한 교회 및 성도 건강검진 설문 작성
18 일	온 가족 한 마음 예배
25 일	전교인 야외예배
	춘계 목장 모임 종료

6 월 예배 봉사자

날짜	기도	성경봉독	친교
4 일	김정현	김준희	여선교회
11 일	류성주	김재연	김정현
18 일	김성실	전남형	김영순
25 일	김현희	이찬성	여선교회

지난 주 헌금 통계

(E-transfer: edmkbc@gmail.com)

항목	통계
십일조	560.00
감사헌금	40.00
주경헌금	620.00
선교헌금	20.00
기타헌금	320.00
계	1,560.00

섬기는 이

담임목사 : 권성범  
반 주 : 안유미  
방송담당 : 김태빈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원을 듣고 돌았세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내 나라(시온)를 진노 중에라도 공물을 잃지 마옵소서 (암 9:2)

2 시

*경배와 찬양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 보혈 날 정결케 하시고 임재	다같이
*예배의 부름	롬 12:1	인도자
*찬송	49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같이
대표기도		류성주 집사
성경봉독	마 5:1-12	김재연 집사
말씀선포	복 있는 사람들 [8]	권성범 목사
결단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주기도송		다같이
*축도		권성범 목사

\*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 은신처에서 전해온 편지: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만큼 고아들을 살리겠어요”**

이 편지는 기독교 유산의 가정에서 자라온 한 북한 남성이 쓴 편지입니다. 그는 간증을 세상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주님께 엄중한 서약을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편지는 명료성을 위해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저는 살면서 중국에 두 번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죠. 구원에 감사하며 이 간증을 써내려 가기로 했어요. 중국에 오기 전에 저는 북한의 노동당 당원이었어요. 인생에서 무언가 이루고 싶다면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죠.

저는 당에서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하여 충성을 다했어요. 저의 이웃 등과 같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말이에요. 저는 그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사랑의 감정도, 위안도, 연민도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북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 저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신 그분의 사랑에 정말 감사해요.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는 저의 삶을 바쳐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침실 커튼을 치고, 무릎을 꿇어 누군가에게 얘기하곤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뭘 하시는지 보려고 할 때 마다 아버지는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와 “예수 사랑하심은”을 부르셨던 것을 기억해요. 이 기억들은 사실 제가 기독교 집안 출신인 것을 확인해주었어요. 저는 그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고 북한에 있는 자녀들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제 삶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저는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매일 아침 죄를 회개했고, 지금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았어요.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힘을 주시죠. 저에게 기쁨과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저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가능하면 빨리 돌아가고 싶어 조금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제가 충실한 종으로서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훈련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저는 고아, 아픈 아이들, 그리고 꽃제비(북한에서 구걸하거나 떠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들을 향해 연민 어린 마음을 가장 많이 느껴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날같이 커지고 있어요. 요즘 제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찬 듯 느껴져서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이국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은혜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처럼 서약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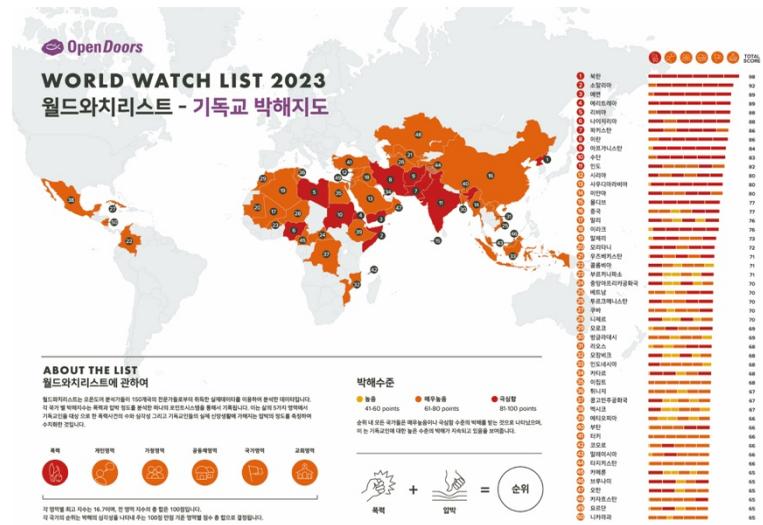
1. 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지킬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가족과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겠습니다. 언젠가 저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헌, 찬양, 그리고 기도로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신 만큼, 저는 33명의 고아를 거두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언약을 지키도록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때가 왔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내 몸과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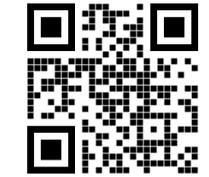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제가 예수님께서 귀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위의 세가지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북한에서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처럼 저희 가정이 사랑의 교회로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남은 일생을 바칠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북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1위-11위)  
북한 - 소말리아 - 에맨 - 에리트레아 - 리비아 -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 이란 - 아프가니스탄 - 수단 - 인도...

https://www.opendoors.or.kr  
스캔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성경 퀴즈

[역대하 25:1-에스라 5:17] 날짜: 이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1. 언제부터 예루살렘의 무리가 아마샤를 모반하였나요? (대하 25: )

2. 요담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였기에 점점 강성하여졌나요? (대하 27: )

3. “히스기야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 )과 선견자 ( )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대하 29: )

4. 히스기야가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무릇에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나요? (대하 31: )

5. 바벨론에 끌려간 므낫세가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하고로 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되었나요? (대하 33: )

6. 누구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요시아왕과 같이 지키지 못하였나요? (대하 35: )

7.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나요? (대하 36: )

8. 사로잡혔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여러 기명들을 누가 다 가지고 왔나요? (스 1: )

9.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 지대의 놀임을 본 여러 노인은 어떻게 하였나요? (스 3: )

10. 성전 건축을 훼방하려는 강 서편 총독은 누구인가요? (스 5: )